

몸으로 성자와 이루는 소통과 교통

작성일 : 2012. 11. 19(월)

작성자 : 권세현

(요즘 계속 뛰고 달리느라 주님의 계시를 많이 받지 못했습니다. 소통과 교통에 대한 설교 말씀을 듣고 주님과 제가 소통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과 소통하고 싶으니 말씀을 받고 싶다고 주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계시를 받는 것만이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 성자 주님의 말씀 *

‘몸으로 하는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내 말을 받음으로 계시를 받음으로

소통하는 방법도 있지만

소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 몸이 되어

나와 선생의 손발이 되어서 행하여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뜻을 위해 나를 위해

대신 살아 줌으로

나와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소통, 교통은

나 성자로 인해 가능한 것이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며

너의 뜻, 주관, 너의 자체 생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대로 행함,

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일을 해 주는

진정한 나의 몸이 되는 소통, 교통을 이루는

나의 신부들이 되어 주기를 진정으로 바란다.

내 영의 몸이 너의 영을 쓰고

너의 육을 통해

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시대 성자와 선생이 원하는 소통이다.

나와 선생의 육신 된 자,

선생과 매일 소통하고 교통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자 선생의 삶을 사는 자니

선생과 소통하는 정도가 아니라

선생과 나와 함께 살며 나의 육이 되어

나와 선생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자가 아니겠느냐.

나의 말을 받고 내 심정을 받는
소통과 교통을 이루어
궁극적으로는
내 몸이 되고 선생의 몸이 되어 사는,
몸으로 이루는 소통, 교통을
섭리사 전체가 이루길 바란다.
그것이야말로 육신 휴거를 이루는 자의 삶이며
영적 휴거를 이루는 자의 삶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신부가 된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온전하고 완전한 삶이며
흠 없고 완벽한 나의 신부의 모습이로구나.
나와의 영적 소통 이루어 그 영적 소통으로
네 영, 혼, 육 완벽하게 나와 소통 이루는
섭리 전체 나의 신부들이 되길 원한다.

소통이란 쌍방향의 소통이며
나는 이미 너희를 향해 소통하고 있으니
너희가 나를 향해 주파수를 맞추어
나에게 나아오면 된다.
선생은 지금 선생의 몸이 되어
선생의 육신 되어 사는 자들과 몸 소통 이루고 있다.

이제는 신부를 완성하는 때이니
말이 아닌 행실로 신부의 삶을 사는 자를 찾고
그런 자와 함께 살고 있노라.
이미 휴거를 이룬 자들은
나와 선생과 함께 살고 있다.
그 삶을 함께 살고 누리며
인생 전체가 선생, 나 성자와 일체 되어
일체 된 삶을 살고 있다.
선생처럼 매일 몸부림의
희생과 고통의 삶을 살고 있구나.

사랑하는 신부들아,
소통과 교통, 영적으로 소통 이루어
육적으로 나와 깊은 소통 이루어
나와 선생의 육신이 되어
내 삶을 살아 다오.
생명을 위해 이 역사를 위해
나와 선생을 위해 살아 다오.

선생의 삶을 보아라.
나와 깊은 대화하여
나와 영적으로 온전하게 일체 된 후에
나의 몸 되어 나의 뜻을 이루는 데
그의 한평생 일생을 바치지 않았느냐.
그의 삶이 나와 소통, 교통의 삶이니
그의 삶 보며
나와의 소통, 교통의 삶을 배워라.

나의 말을 받는 자들만
나와 소통하고 교통하는 자들이 아니다.
감동, 감화를 받고 행하는 자들 또한
나의 뜻을 받아
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니
너희들 또한 나의 뜻을 이루느라
수고가 많구나.
힘내서 더욱더 나와 소통하고 교통하자.
나의 몸 되어 나의 뜻을
더욱더 깊고 높게 차원 높게 이루어
7만 선교 이루어 다오.
7만 선교 이루는 것이 바로
신부의 삶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다.

나와 소통하고 사랑하고 나와 대화하고
나와 통하는 신부들아,
너희들의 소통을 말판 삼아
나의 몸 소통 이루어라.
그것이 바로 나의 육신이 되는 길.
나의 양떼를 치는 것이며
나의 생명들을 먹이는 길이다.
7만 선교에 모든 것을 바치고 뛰어 들 수 있는 자들은
나의 온전한 신부가 되어
나의 몸이 된 자들이다.
그러니 나와의 소통 이루어
나의 온전한 신부들 7만을 만들어 주어라.

소통과 교통, 대 작품 설교에 대한
나 성자의 깊은 뜻과
나의 심정을 밝히 일렀으니 깨닫고
나와 몸 소통, 나와 몸 교통 이루는
섭리사 모든 신부들 되길 원한다.